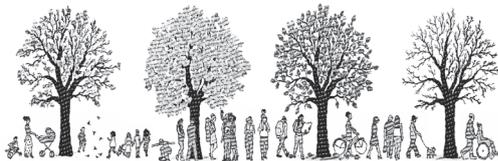


# 생애의 리듬

## TMI 실천해 보세요

71. 전도지를 전하세요.  
 52.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방문하세요.  
 57.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사람들을 기다려 주세요.



- **연구 범위** 창 1장, 창 8:22, 시 90:10, 욥 1:13~19, 행 9:1~22, 빌 1:6, 롬 8:1.
- **기억 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전 3:1).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시문학의 일부는 솔로몬 왕의 작품이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전 3:1~8).

이 말씀은 인생살이, 곧 우리의 삶의 때와 주기를 너무도 잘 포착하고 있다. 그렇다. 우리의 삶은 단계와 변화를 거친다. 그 과정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러한 변화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으며, 그것들을 잘 관리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이번 주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 자신과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삶의 시기들과 리듬에 대해 살펴 보려고 한다.

# TMI Time



## ※ 학습 목표

- 깨닫기 : 우리 삶 속에서 발생하는 주기적인 또는 예상치 못한 변화의 실상을 이해한다.
- 느끼기 : 다양한 변화의 경험 속에서 여전히 주님의 계획 속에 머물기를 소망한다.
- 행하기 :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감화를 끼치고자 노력한다.

## TMI 안으로 안교소그룹이 함께 서로를 돌보고 연합함

1 서로 인사를 나누고 손님을 환영해 줍니다.

2 출석과 공부를 확인하고 안교헌금을 걷습니다.

3 결석자와 구도자에 대한 보고를 듣고 방문 계획을 세웁니다.

## TMI 위로 안교소그룹이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감

- ① 그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합니까?
- ②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어떤 큰 변화들을 겪습니까?
- ③ 예상할 수 있는 변화와 예상하지 못하는 변화의 종류를 열거해보십시오.
- ④ 개인의 신앙적인 발전을 위해서 변화는 얼마나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⑤ 그대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변화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 ⑥ 어떻게 우리의 신앙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 삶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변화는 때로는 주기적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변화 속에서 오히려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며 살 수 있습니다.

## TMI 밖으로 안교소그룹이 함께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봉사함

- ① 우리 안교소그룹이 지난 기에 실천했던 TMI 활동을 검토합니다.
- ② 우리 안교소그룹이 이번 기에 실천할 TMI 활동에 대해 토의합니다.
- ③ 우리 안교소그룹의 TMI 활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TMI(Total Member Involvement)는 전 교인이 '모두 참여 함께 나눔'의 정신으로 실천하는 '관계 중심 생활 전도' 운동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 8:22).

“태초에”(창 1:1). 성경은 왜 그 말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는 억양으로 시작한다. 첫 장은 특별히 “혼돈하고 공허”(창 1:2)한 지구가 6일 만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는 선언을 들을 만큼 변화된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 요컨대, 그것이 곧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시작이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라. 많은 일들이 진행됐지만 이렇게 자문해 보라. 어떤 무작위성 내지 우연의 요소는 없는가? 아니면 모든 것이 적시적소에 매우 질서정연하게 이루어 졌는가? 그대의 대답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엘렌 G. 화잇은 “질서는 하늘의 첫째 법칙”(영문시조, 1908년 6월 8일)이라고 말했다. 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죄가 천연계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여전히 질서와 주기와 규칙성은 어느 정도 남아있다.

창 8:22을 읽어보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질서를 찾을 수 있는가?

타락 후에도 계절은 보통 질서정연하게 오고 간다. 공중의 광명체들(낮과 밤을 나누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는 태양과 달[창 1:14])과 더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계절뿐 아니라 곳곳에 자연의 리듬이 존재한다. 우리가 현재는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지만, 사 66:23 같은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리듬감이 존재할 것이라고 암시한다.

## 교훈

창세기는 혼돈하고 공허했던 지구가 질서와 리듬을 가진 세계로 변모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타락 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그러한 리듬을 간직하고 있다.



## 목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대의 삶은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규칙적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와 체계'의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를 따라 진행되었고 그분의 성품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침범은 창조의 방향을 역행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인간도 의외성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그분의 통치에 굴복하고 내 삶 속에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 적용 그대는 자신의 삶에서 무질서한 것들을 어떻게 정돈하기를 바랍니다?

-----

-----

-----

### 영감의 교훈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 “지구가 해마다 그의 소산물을 내며, 태양 주위를 계속 공전하는 것은 고유의 힘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유성들을 인도하시고 우주 전역에 걸쳐서 그것들이 제자리를 지키며 질서 정연하게 운행하도록 하신다”(부조와 선지자, 114).

### 기도



아버지, 혼돈하고 공허한 제 삶에 찾아오셔서 다시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한 제 삶을 맡깁니다. 질서와 규칙이 있는 정돈된 삶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과학자들은 생체리듬이라는 개념에 대해 논한다. 그들은 신체의 기능에 주기를 가져오는 생물학적 리듬(또는 신체 시계)이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 자체에 어느 정도의 주기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의 주변과 우리 안에도 리듬이 존재한다.

다음의 성경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측 가능한 생애의 시기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은 가정생활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가?

전 3:2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창 21:8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삿 13:24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시 71:5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잠 5:18 “네 섹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창 15: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삿 8:32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으매…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시 90:10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탄생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두 표지 사이에서 우리는 저마다 다른 다양한 삶의 시기를 지나간다. 어떤 아이는 태어난 뒤에 오래 살지 못하고, 어떤 아이는 어른으로 성장해 노년에 이른다. 아이들은 각자의 속도에 따라 자라며 발달한다. 어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걷거나 말한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며 성장하여 전문직 종사자가 되는 반면 어떤 아이들은 다른 형태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떤 아이들은 가족을 이룰 테지만 어떤 아이들은 결혼하지 않거나 자녀를 낳지 않는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산다. 우리는 공통점들이 상당히 많지만(참고 행 17:26), 각각 다른 개인이기에 삶에도 차이점이 존재한다.

교훈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서로 다른 속도로 다양한 삶의 시기를 지나다. 하지만 각자 고유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복되게 할 수 있다.



## 목상 **그대는 지금까지 어떤 삶의 시기와 단계를 거쳐왔습니까?**

(이어서)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차이점들이 중요한 이유는 각자가 삶의 독특한 면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들을 나누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에게 있는 차이점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젊은이든 노인이든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받을 수 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잠 20:29). 우리가 어떤 단계에 와 있든지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주님뿐 아니라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다.

## 적용 **현재 어떤 삶의 시기를 보내고 있든지, 그대가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

### 영감의 교훈



**축복의 통로가 되라** - “날마다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우리는 하늘의 복된 빛과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설교와 강연 2권, 305).

### 기도



아버지, 영적으로 미숙아 같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도 아버지 같은 관대한 마음을 주셔서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 예상치 못한 일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욥 1:22).

욥 1:13~19, 2:7~9을 읽어보라.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가 당한 경험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 외에 불변하는 것은 없다”는 말을 남겼다. 모든 것이 순탄해 보이는 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그것은 직업이나 팔다리를 잃는 사건이나 우리를 병원 또는 일찍 무덤으로 보내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화재, 자동차 사고, 또는 애완동물과 걷다가 일어나는 낙상일 수도 있다.

물론 모든 변화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승진을 하면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진다. 또는 배우자가 될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런 변화는 누구라도 환영한다.

무엇이 됐든지 우리는 일상적인 리듬에 따라 살아가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큰 변화를 맞이한다.

욥도 자신의 삶에 새로운 때가 이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성경은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욥 1:1)라고 묘사했다. 그는 결혼해서 일곱 명의 아들과 세 명의 딸을 둔 부자였다(욥 1:2~3). 그러나 욥기 중간을 보면 그는 6가지의 커다란 손실, 즉 사업, 노동력, 자녀, 부, 아내의 지지, 친구의 격려를 잃고 시름한다. 그의 세계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가족의 삶은 황폐해졌다.

사실 욥에게 일어난 일들이 매우 극단적이지만 우리 중에도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생은 아무 문제없이 순탄해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모든 것이 바뀌고 우리의 삶과 가족의 생활까지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변하기도 한다.

## 교훈

우리의 삶에 리듬과 주기가 있을지라도 예상치 않은 일로 인한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올 수 있고, 그런 변화가 가족 사이에서 생길 수도 있다.



**묵상** 그대의 삶 또는 가정생활에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왔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신앙은 그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어서) 이것이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아벨은 아마도 자신이 살해당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 가리라고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둘 다 가족에게 배반을 당했다. 두 이야기 모두 가족 구성원에게 일어난 일이 가족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성경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과 가족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적용** 그대가 현재 어떤 변화 중에 있다면 어떻게 신앙을 통해서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할까요?

-----  
-----

### 영감의 교훈



**이변을 일으키는 사탄** - “사탄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그는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각 시대의 대쟁투, 589).

### 기도



아버지, 저는 하루 앞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큰 폭풍과 파도가 제 삶에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하신다는 사실은 알고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제 삶의 선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행 9:3).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다.’라는 말은 사실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방식을 고정시킨다면 그 방식이 오래될수록 그 방식을 바꾸기는 더 어려워진다.

사실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남편을 바꾸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개성보다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다. 구원의 계획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다소 사람 사울에게 어떤 큰 변화가 생겼는가?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났는가?(행 8:1, 3, 9:1~22, 갈 1:15~17)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거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간구하였다.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고 교제하기를 갈망하였으며, 용서와 용납하심을 구하는 그의 열렬한 소망을 은혜의 보좌 앞에 뜨겁게 탄원하였다.

“참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그의 고상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는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하게 되었다”(사도행적, 119~120).

## 교훈

습관에 고정된 삶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일하시며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



**대상** 빌 1:6과 롬 8:1을 읽어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 어떤 큰 약속이 있습니까?

(이어서) 우리가 회심한 사인이 비록 사울의 것처럼 극적이지 못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경험이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길 수도 있고, 때로는 변화할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위의 두 성경절을 묵상하고 그 약속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적용** 위에서 말하는 약속이 어떻게 그대의 신앙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

-----

-----

**영감의 교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됨** - “참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함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남녀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가려 뽑은 기별 1권, 132).

**기도**



아버지, 제 삶에 가져오시는 변화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혹시 제가 그런 변화의 목적을 모르고 거부하고 있다면 저를 깨우쳐 주시고,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신 성령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은 관계를 다룬 책이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 중 완전한 고립 속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는 처음부터 남의 도움 없이는 태어날 수 없다. 태어난 뒤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일정한 나이가 돼서야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다. 하지만 혼자 살 수 있어도 누가 그렇게 살고 싶었는가? 우리는 대부분 동료들을 원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우정을 갈망한다. 물론 강아지 같은 애완동물도 정겨운 동반자가 될 수 있겠지만 깊고 의미 있는, 그리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상호작용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가족 또는 가족관계가 우리의 삶에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과 항상 교류하기 때문에 이런 상호작용은 삶의 변화와 리듬에 항상 영향을 미친다. 우리와 교류하는 다른 이들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과 교류하는 우리는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대부분 인식하지 못함), 그러한 상호작용은 서로에게 그리고 선악 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남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우리는 그것이 항상 선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항상 주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같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이다.

다음의 성경절들을 읽어보라. 이 말씀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상호작용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롬 15:7, 엡 4:2, 32, 살전 3:12, 약 5:16

원리는 단순하다. 우리가 남에게 바르고, 친절하며, 정겹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그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칠 것이다. 사람들의 삶을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감화를 준다는 것은 아주 큰 특권이다. 잊지 말자. 우리는 선악 간에 심지어 미묘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우리의 감화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으며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 더 깊이 나타난다.

## 교훈

하나님은 우리가 남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한 감화를 끼쳐서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야 한다.



**묵상** 눅 11:34과 막 4:24~25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법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눅 11:34).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막 4:24~25).

**적용** 그대가 예수님처럼 선한 감화를 끼쳐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아래 적어보십시오.

-----

-----

-----

### 영감의 교훈



**가치 있는 복된 감화** - “이렇게 복된 감화를 사람들에게 끼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생애인가? 그리고, 이런 평생 사업의 결과를 영원한 나라에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교육, 70).

### 기도



아버지,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갈지라도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흑암 속에 하늘의 빛을 가져가고 불행감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선물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과 동거할 때에 그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생각해 보라. 그들은 대부분 학식이 없고, 단순하며, 유대 신앙의 교훈과 전통에 익숙한 자들이었으나, 이제 갈릴리 출신 랍비의 사상에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시기(마 20:20~24)와 갈등(요 3:25)을 겪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했다(마 26:56, 69~74).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고(마 26:73), 산헤드린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행 4:13).

우리 가족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 때 그들에게 미칠 크고 긍정적인 감화에 대해 생각해 보라. 그들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 것이다.

가정에 미치는 감화력에 대한 엘렌 G. 화잇의 권면을 보라. “가정은 겸소하되, 언제나 유쾌한 말과 친절이 오가며 예모와 사랑이 영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재림신도의 가정, 18).

###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① 전 3:1~8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② 자신이 경험한 삶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대가 그것으로부터 배웠던 교훈과 배워야 했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대가 깨닫

지 못했던 교훈에 대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대의 삶의 변화는 그대의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③ 그대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그대의 삶은 얼마나 심각하게 달랐을까요? 지금 그대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 무엇을 증언합니까?

## 남아메리카지회

이번 기에 우리가 살퍼볼 지회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포클랜드 제도,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및 대서양과 태평양에 인접한 섬나라들의 재림교회를 감독하는 남아메리카 지회입니다. 이 지역에는 248만 명의 재림교인들을 포함하여 3억 4천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림교인 비율은 137명 중 한 명입니다.

이번 기의 13번째 안식일 특별 선교 계획은 “감화력 센터”에 대한 것입니다. 브라질과 페루에 세울 세 곳의 감화력 센터는 모두 새로운 재림교회 부지 안에 있습니다. 네 번째 감화력 센터는 페루 쿠스코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영어 수업, 음악 수업 및 기타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문화센터입니다. 이 문화센터의 목적은 쿠스코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 브라질 아루아나에 교회 검 건강 센터 신설
- 브라질 살바도르에 교회 검 문화 센터를 위한 부지 확보
- 페루 쿠스코에 영어 연수원 및 청소년 문화 센터 개설
- 페루 푸칼파에 교회 검 진료소 건립

제공 : 대총회 세계 선교부



## 일천번제 추수 운동

2016년부터 한국재림교회는 전국적으로 TMI 사업과 지역교회 감화력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선교방식은 종종 현대인들에게 불쾌감을 주어서 신뢰를 얻기 전에 마음 문이 닫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알려주신 것처럼 먼저 이웃의 친구가 되고, 그다음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며,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성공이 보장된 그리스도의 선교 방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이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뢰를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치료봉사, 143).

이렇게 활동하는 교회들은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가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척박한 선교 토양이 다시 비옥해진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공중전도회를 개최하면 새로운 영혼들이 가득 물려옵니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우리는 더욱 효과적인 추수를 위해 2 cycles 5 steps라는 연 2모작 5단계 전도 시스템을 강조하고 정착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마디로 준비된 전도 과정을 통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영혼구원의 결실을 거두자는 취지입니다. 2018년에는 전국의 230여 교회에서 5단계 전도방법을 실천한 결과 줄곧 하향곡선을 그리던 한국연합회 선교지표가 드디어 완전히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 2019년에는 모든 교회가 준비된 공중전도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5단계(헌신-접촉-연결-공중전도회-정착) 과정을 통한 공중전도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선교부뿐 아니라 청소년, 어린이, 보건의료 및 여성 가정부, 출판, 홍보부까지 모든 부서가 총동원되어 일천번제 추수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최소한 연 1회 이상 공중전도회를 운영하고, 가능하다면 연 2모작 5단계 전도과정을 통하여 준비된 전도회를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부흥의 기틀을 다지기를 바랍니다.

현재 모든 합회가 나름대로 일천번제 추수운동을 합회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TMI와 감화력 사업을 바탕으로 선교 토양을 다진 후 2cycles 5steps로 준비된 전도회를 운영하여서 들판에 무르익은 곡식들을 풍성하게 거둬들이는 2019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안식일학교·선교부장 이병주

개인, 소그룹, 교회의 TMI 활동 소식을 올려주시시오.

참여한 모든 분께 기념품을 드리며 우수 제안 또는 활동 소식을 선정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 안교·선교부 홈페이지 TMI Time 게시판 또는 이메일 kucspm1@kuc.or.kr